

## 벤투호, 남미팀 상대 평가전 1승1무 수비불안 노출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FIFA랭킹 29위)이 11월 열리는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상대인 우루과이를 대비해 치른 3 차례의 남미팀과의 대결 결과 1승1무1패를 기록했다.

벤투호는 지난 2일 브라질(FIFA랭킹 1위)과의 경기에서 5대1로 완패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칠레(FIFA랭킹 28위)와의 경기에서 황희찬과 손흥민의 골로 2대0으로 승리했다. 이어 지난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파라과이(FIFA랭킹 50위)와의 평가전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 경기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은 고질적인 수비불안을 노출했다.

파라과이가 전방 압박을 빠져나오며 수 차례 위기



▲ 추가골을 넣고 기뻐하는 정우영(오른쪽)  
사진=대한축구협회

를 맞았고, 결국 전반 22분 선제골을 내줬다. 후반 3분에도 역습을 맞아 또 한 골을 내줬다.

한국은 손흥민의 프리킥골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손흥민은 후반 21분 페널티에 어려운 정면에서 맞은 프리킥 기회에서 상대 수비벽 넘기는 절묘한 슈팅으로 왼쪽 상단 골망을 흔들었다. 그리고 추가시간에 정우영이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극적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벤투 감독은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다. 경기를 주도했지만, 해결책을 내지는 못했다.” 면서도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벤투호는 6월 14일, 6월 평가전 마지막 4차전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집트와 치른다.

## 10억 달러 거절한 우즈 “PGA투어에 헌신할 것”

타이거 우즈(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의 지원을 받는 LIV골프인비테이셔널로부터 초청료 10억 달러를 제안 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스포츠동아’에 따르면 LIV인비테이셔널을 주도하고 있는 그레그 노먼(호주)은 전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즈에게 앞자리가 높은 9자리(high nine digits) 숫자의 금액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즈의 대답은 단호한 거절이었다. 노먼에 따르면 우즈가 거절한 계약금은 ‘충격적일 정도로 많은 금액’이었다.

우즈가 거절한 ‘충격적일 정도로 많은 금액’은 최대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금까지 우즈가 PGA투어에서 벌어들인 상금 1억2,000만 달러의 8배가 넘는 액수이자 우즈가 평생 모은

재산 20억 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우즈는 그동안 “PGA투어에 헌신하겠다.”며 PGA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언급해 왔다. 지난달 열린 PGA챔피언십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골프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이해하지만 나는 PGA투어의 유산을 믿는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우즈는 PGA투어에서만 통산 82승을 거둬 샘 스니드(미국)와 최다승 공동 1위, 메이저대회 15승으로 잭 니클라우스(미국)에 이어 2위에 올라있다. 그야말로 PGA의 살아있는 역사. 그가 현금의 유혹을 뿌리치고 선택한 것은 믿음과 자존심’이었다.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은 1억 달러, 미첼(미국)은 3,000만 달러의 초청료를 받고 LIV인비테이셔널에 합류했다.

## NBA ‘전설’ 코비 유니폼, 273만 달러에 낙찰



미국프로농구(NBA) ‘전설’ 고(故) 코비 브라이언트가 신인 시절 착용했던 유니폼이 34억원이 넘는 금액에 팔렸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매사이트 SCP옵션스는 전날 브라이언트가 데뷔한 1996~1997시즌 착용한 LA 레이커스 유니폼이 273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낙찰자는 신원 공개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SCP옵션스는 과거 경기 영상·사진을 대조·분석해 브라이언트가 등번호 8이 새겨진 이 유니폼을 1997년 4월 11일·13일·17일, 5월 8일과 10일까지 총 5번 입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5월에 있었던 두 경기는 유타 재즈와 플레이오프(PO) 2라운드 3차전과 4차전으로, 브라이언트는 이 중 3차전 팀 최다 득점인 19점을 넣으며 승리를 이끌었다.

SCP옵션스는 경매 전 이 유니폼의 가치가 300~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1996년부터 2016년까지 LA 레이커스에서만 뛴 브라이언트는 현역 시절 다섯 차례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파이널 최우수선수(MVP) 2회, 정규리그 MVP 1회, 올스타 18회, 득점왕 2회 등 빛나는 성과를 남겼다. 미국 국가대표로도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그러나 2020년 1월 캘리포니아주 상공에서 타고 있던 헬리콥터가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사고 헬리콥터에는 코비와 코비의 딸 지아나를 비롯해 총 9명의 탑승자가 있었으며 전원 사망했다.

사진=SCP옵션스

##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넷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